

무재해 소망을 담은 충북지역 안전기원제

취재 | 임동희 기자

지난 3월 17일 아침. 장승공원(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소재) 주차장에 간단한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다소 들뜬 표정으로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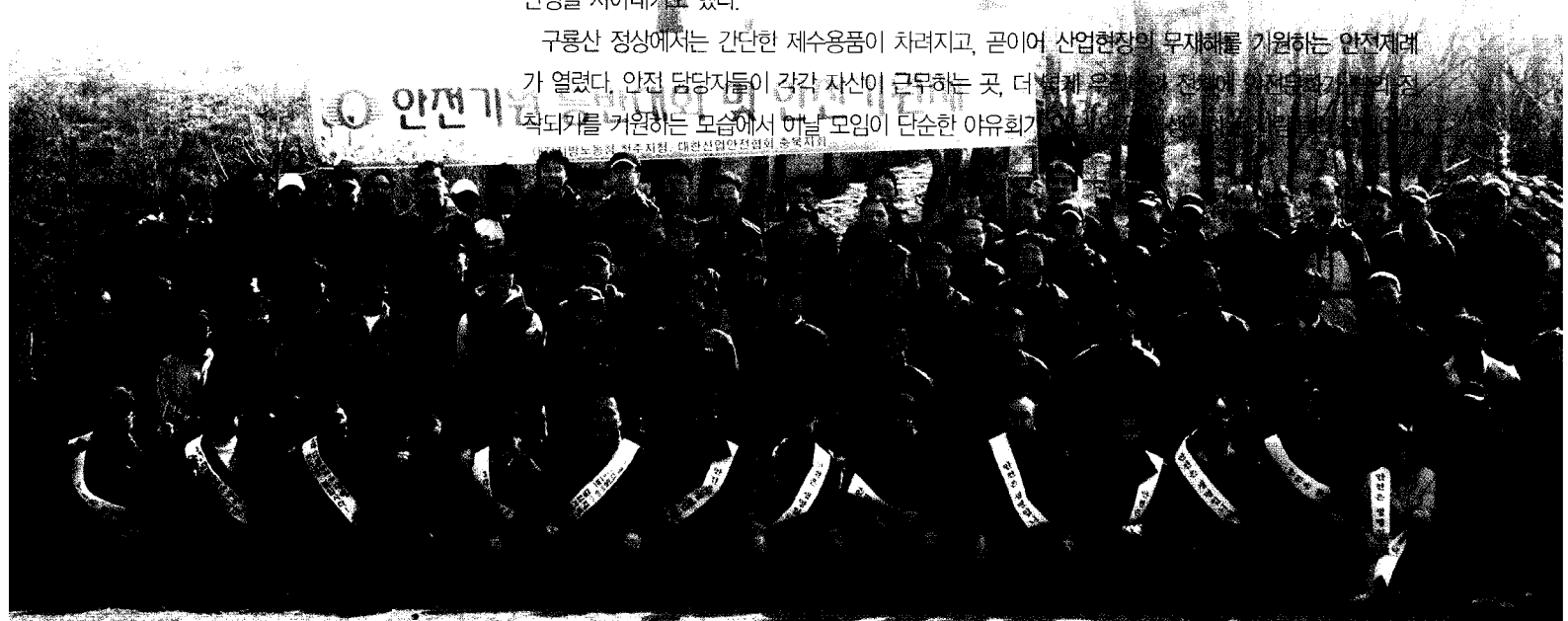
이날은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안전기원 등반대회 및 체육행사'가 있는 날이다. 행사에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및 (주)한국산업안전본부, (주)건설안전지원센터,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청주지청 관내 각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그 동안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느끼고자 하는데 의미를 뒀다.

오전 10시부터 장승공원 입구에 집결, 간단한 개회사와 산업재해지들에 대한 묵념, 안전결의선서 등을 시작으로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광노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장을 비롯해 각계의 주요 인사들은 안전관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간단한 기념행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구룡산 등반이 시작됐다. 장승공원 입구부터 구룡산 정상까지 30여분을 올라가는 동안 구룡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500여 장승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어우러진 모습은 참가자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다. 특히 해발 373m 정상에서 바라본 대청호와 구룡산 산기슭의 전경은 때마침 내리쬐는 봄 햇살과 어우러지면서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구룡산 정상에서는 간단한 제수용품이 차려지고, 곧이어 산업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제례가 열렸다. 안전 담당자들이 각각 자신이 근무하는 곳,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진심어린 축사들을 낭독하는 모습에서 이날 모임이 단순한 야유회가 아닌, 안전을 위한 진심어린 결의의 자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례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가득 꽂힌 지폐에서 항상 안전을 기원하는 이들의 진심어린 열의가 느껴졌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팀은 즉흥적으로 나뉘었다. 종목은 족구. 아침부터 이어진 일정으로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일 법도 하건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열띤 승부가 펼쳐졌다.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웃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에서는 안전보건인들만의 기품이 느껴지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족구와는 다른 묘미의 윷놀이가 진행됐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따라잡고 따라잡히고... 여기저기서 참가자들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놀이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로 웃고 즐기는 모습에서는 안전이라는 하나의 터울 아래 모인 '가족' 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았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시상과 함께 경품추첨이 시작됐다. 참가자 모두에게 경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경품 역시 참가자 및 업체가 내놓은 협찬품. 결국 이날 마지막을 장식했던 경품행사도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는데 그 의미를 뒀다.

이번 행사는 안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동료들이 뭉칠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곳 행사장에는 하루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이 웃으면서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앞으로 산업현장에도 무재해로 인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해본다. 😊



곽노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시청장

해마다 이렇게 기원제를 지내고 있는데, 올해에는 날씨도 따뜻하고 장소도 아주 좋고 해서 아주 기분 좋게 행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매년 참가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는 우리 충북지역이 작년에 비해,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재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건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원제를 통해서 사망재해가 줄어들도록 기원하셨으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지역 재해예방기관과 각 사업장에서 참석해 주신 안전관리자분들이 특별히 더 노력하여 사망재해를 줄이는데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과 사업장 안전관리자분들이 서로 협조하여 충북지역의 재해율을 줄이도록 일치 단결하시고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를 해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지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Aimex 2009

“자동화의 모든 것이 한눈에”

취재 | 임동희 기자

3월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약 2만여명 참관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제20회 국제 자동화 종합전(Aimex 2009)'이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리고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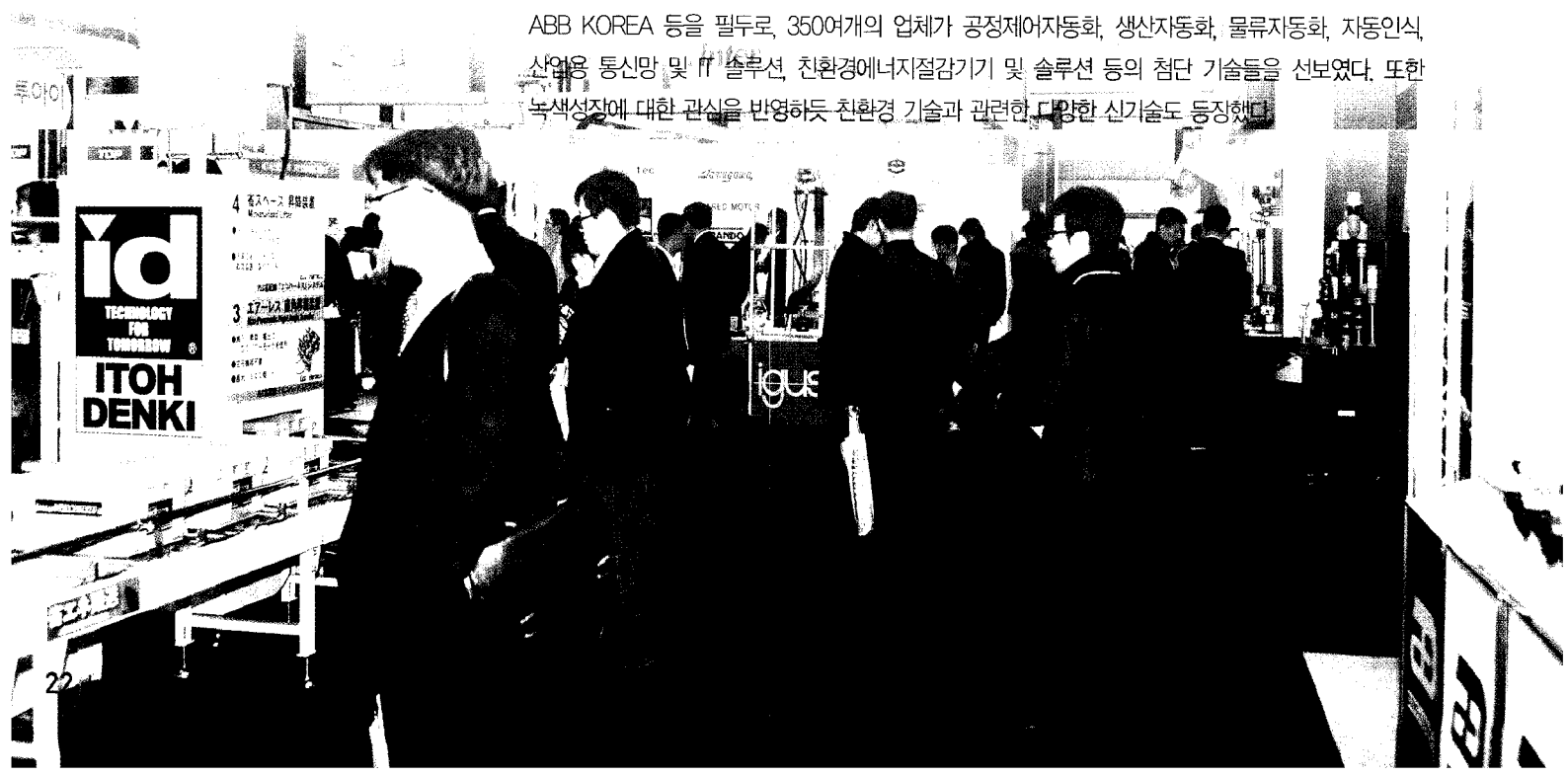
3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던 2009 국제 자동화 종합전은 자동화 산업의 대표 전시회로 평가된다. 올해 역시 참여 업체만 350개에 달할 정도다.

관련분야 최고의 관심사답게 행사기간 내내 전시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주최 측이 추산한 이번 전시회의 참관인원은 약 2만 여명.

새롭게 시도됐던 친환경의 운영체제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아이템들이 출시되면서 바이어들의 호기심이 어느 때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불고 있는 경기침체 바람이 전시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제자동화종합전 사무국 조상근 팀장은 “신제품 및 신기술을 접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의 욕구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동화 산업관련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멘스, LS산전, 로크웰오토메이션, ABB KOREA 등을 필두로, 350여개의 업체가 공정제어자동화, 생산자동화, 물류자동화, 자동인식, 산업용 통신망 및 IT 솔루션, 친환경에너지절감기기 및 솔루션 등의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다. 또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전시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합안전(Safety Integrated) 분야였다. 이번 전시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것인 만큼, 이를 모두로 하는 기계 안전표준 및 안전자동화 솔루션의 생생한 시연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최신 자동화 기술과 신제품, 통합안전 솔루션에 대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중심의 산업자동화 전시회를 산업용 통신망 분야의 에너지절감기술을 집목한 자동화 솔루션 분야로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아시아 최고 전시회로 성장하기 위해 올해에는 친환경을 컨셉트로 잡고 전시회를 운영했다."라며 "여기에 무료 의료검진 서비스센터와 관광 셔틀버스 등 다양한 바이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평가했다.

뜨거운 관심 속에 4일간 진행됐던 국제자동화 종합전 전시기간 내내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침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최근 산업 자동화 공정,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국제자동화종합전이란?

국제자동화종합전은 1990년 KOFA(Korean International Factory Automation System Exhibition)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2006년에 Aimex로 이름을 변경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국제자동화종합전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더 나은 가치로 다가서겠다'는 기치이래 친환경 미래 전략을 제시하여, 자동화 기술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기치에, 시스템 및 패키지 부품을 전 세계로 소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